

자기소개서쓰기 특강

<제목 차례>

1. 이미지	1
2. 자기소개서 쓰기 1강 <단문으로 글쓰기>	3
3. 자기소개서 쓰기 2강 <단문 이어쓰기와 자연스러움>	5
4. 자기소개서 쓰기 3강 <단문 이어쓰기와 논리적 연결>	7
5. 자기소개서 쓰기 4강 <질문에 상응하는 응답>	9
6. 자기소개서 쓰기 5강 <질문구조를 이용한 글쓰기>	11
7. 자기소개서 쓰기 6강 <쓰기의 시작>	13
8. 자기소개서 쓰기 7강 <현실과 꿈>	15
9. 자기소개서 쓰기 8강 <배우고 느낀 점과 주관성>	18
10. 자기소개서 쓰기 9강 <단계별 과정>	20
11. 자기소개서 쓰기 10강 <배우고 느낀 점과 발견>	26

1. 이미지

생물은 사물을 사물 그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생물에게 보내어지는 정보는 사물에 반사되어 나온 광자(빛)입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생물은 이 광자의 조합을 뇌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된 결과를 사물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이 사물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결과로서의 사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된 결과에 의미가 더하여져 재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물의 모든 세세한 부분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대략이 파악될 뿐입니다. 그래도 뇌 속에서는 그것을 사물로 그리고 의미로 인식을 합니다. 모든 호랑이가 완전히 동일한 호랑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느 호랑이를 보았을 때 그 호랑이의 세세한 특징은 몰라도 호랑이라는 사실은 인식을 합니다. 호랑이의 인상(image #이미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한 학생의 학생부를 읽을 때, 학생부에 기재된 텍스트의 세세한 글자 하나하나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할 뿐입니다. 중요도가 있는 그리고 특징이 있는 내용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인상(image)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부의 문구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지만 그 문구의 세세한 부분이 입학사정관에게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대략적인 인상이 의미를 줄 뿐입니다. 대략적으로 의미가 파악되기 때문에 일부 사소한 오류들은 소거가 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 등은 과도하지 않은 이상 뇌리에서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됩니다. 인상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옵니다. 의도가 들어가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도 아무리 두꺼운 학생부일지라도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소거시키고 나면 읽을만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생부를 입학사정관 여러 명이 봅니다. 여러 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집단적 합의가 관점을 장악합니다. 그 합의 때문에 한 학생의 학생부는 여러 사람 사이에 동시에 존재하는 교집합적 인상에서 의해 규정됩니다. 무의식적인 집단적 합의를 굳이 일컫는다면 해당 대학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강과 같은 문서에 보면 "우리 대학의 인재상은 Bla Bla~~"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허구입니다. 대학이 어거지로 문서화한 것이고, 본질은 "우리 대학에 충성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지 않고, 우리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장래에 사회에 진출하여 대학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부는 1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각 학년의 담임과 여러 과목 선생님이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여러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다양한 관점으로 본 한 학생의 특징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이것을 읽고 여러 사람의 기재로부터 나온 특징으로부터 공통점을 파악합니다. 학생부의 기재에 학부모들이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선생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흔들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생부종합은 학생 개인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그 학생의 출신고, 그 학생의 거주 지역, 그 학생의 배경이 초점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학생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신경을 쓴다고 할지라도 학생이 부합하지 못하면 그것이 학부모의 기대만큼 발현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질러 보아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수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여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이 보편화되면 학부모들의 관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원도 사라지고 컨설팅도 사라지고 오로지 학교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시 문화는 실적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정량으로 모든 관점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현재 혼동 속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도 수능으로 해결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이 등장하면서 이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은 내신으로 결정된다."입니다. 수능과 내신의 공통점이 정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도 몇 년 있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가 과도기라는 점을 알려 주는 징후입니다.

과도기에는 아는 사람이 먹습니다. 정보의 비대칭때문입니다. 아는 학부모는 덤벼들어야 합니다. 모르는 학부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2. 자기소개서 쓰기 1강 <단문으로 글쓰기>

자기소개서는 글입니다. 글은 말이 아닙니다. 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마주치기 때문에 느낌과 감정에 의한 명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마주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눈앞에 없기 때문에 느낌과 감정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말로 하면 명료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일지라도, 글로 하면 불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글이 갖는 한계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명료함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단문 중심으로 서술하라."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왜냐하면, 단문이 명료함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문은 짧은 문장입니다. 짧다는 것이 물리적 길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다는 것은 문장의 구조가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문은 주어와 서술어로 된 단순한 구조를 갖는 문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문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비문(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할머니의 심장병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저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

사례 2 : "할머니는 심장병을 앓으셨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가족 모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고통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사례 1의 경우에 의미전달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읽다보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에 비해 사례2는 호흡이 덜 가쁩니다. 사례1은 1개의 문장입니다. 반면에 사례2는 4개의 문장입니다. 사례1은 1개의 문장 속에 "저"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긴 문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2는 4개의 문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짧은 호흡 4개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명료해 보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3 : "미술작품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저는 아름다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건축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역사적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비문(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1개의 문장 속에 많은 의미를 넣고자 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문을 보게 되면, 눈살이 이 찌푸려집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단문입니다.

사례 4 : "저는 미술작품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동일한 아름다움을 중세 건축물에서 보았습니다. 그 건축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중세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는 4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단문으로 이루어졌고, 의미의 전달도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문도 피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남이 읽는 글입니다. 남이 읽는 글이기 때문에 명료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없애려면 글이 명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명료한 글이 되어야 합니다. 명료한 글의 출발은 단문입니다.

3. 자기소개서 쓰기 2강 <단문 이어쓰기와 자연스러움>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욕심이 문장을 장문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문장이 장문이 되면, 만연체가 될 뿐 아니라 비문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문으로 글을 작성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문으로 글을 쓰게 되면 나열식의 서술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열형의 글은 마치 노트 정리와 비슷해서 읽는 사람에게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나열형으로 글을 쓰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례 1 : "저는 경제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햄버거 가게의 출입자 수와 그 가게의 햄버거 판매량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 "저는 경제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의 출입자 수와 햄버거 판매량을 비교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조사한 자료의 비교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 1은 나열형입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각 문장은 단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읽어보면, 대략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구워져서 딱딱해진 패티를 씹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사례 2는 나열형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지만, 사례 1과 다른 느낌입니다. 역시 각 문장은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속에서 부드러운 패티와 소스가 융합되는 느낌입니다.

사례 1의 문장들은 서로 독립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사례 2의 문장들은 연결된 느낌입니다. 차이점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요소에 있습니다. 사례 1의 문장들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교집합 역할을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 2의 문장들은 앞선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 교집합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례 2는 연결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사례 2의 경우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는 문구가 연결 요소 역할을 했습니다. '비교'라는 어휘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사이에서 연결요소가 되었습니다. 글을 씬에 있어서 이러한 연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수요와 공급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수요와 공급" 문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은 "수요"나 "공급"이라는 어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연결 요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휘이어도 되고 문구여도 됩니다. 나아가 별도의 문장이어도 됩니다. 반드시 앞에 사용되었던 어휘, 문구, 문장이 동일해야 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

으로 동일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대명사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례 3 : "저는 수요와 공급을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갖는 재화에 대한 필요성과 기업이 만드는 재화의 생산량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그것은 블라블라. 기업의 그것도 블라블라"

첫 문장의 '수요'는 두 번째 문장에서 '필요성'이 되었고, '공급'은 생산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들을 대명사로 처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 요소에 의한 "단문 이어쓰기"가 문장과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남이 읽는 글입니다.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읽는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움이 자기소개서를 쓴 상대방의 이미지를 용이하게 그려줍니다. "단문 이어쓰기"가 "이미지 만들기"의 출발입니다.

4. 자기소개서 쓰기 3강 <단문 이어쓰기와 논리적 연결>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설명하는 글인 동시에 타인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설명된 '자기'를 근거로 타인의 판단을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는 생각이나 추론이 지녀야 하는 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칙을 따릅니다. 이를 위해 결론 명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 명제가 호응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A는 B이다.(1번) B는 C이다.(2번) 그러므로 A는 C이다.(3번)"라는 글이 있습니다. 논리의 원칙에 따르면, A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B라는 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C는 B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 혹은 원리입니다. (1번)문장과 (2번)문장이 '참'일 때, 결론에 해당하는 (3번)도 '참'이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글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사실과 "사람은 죽는다."는 원리에 의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가 갖는 원론적 뜻에 매달리면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의 합리적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글쓰기를 쉽게 합니다.

사례 1 : "저는 공기의 운동을 다루는 유체역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탐구과제로서 드론에 대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기계공학입니다."

사례 2 : "드론은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드론을 탐구하면서 공기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기의 운동과 직접 관련된 영역이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을 인간의 생활과 연결시켜 다루는 학문이 기계공학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례 1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순서와 무관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성자가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읽는 사람은 그 이유를 머릿속에서 그려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례 2는 그 사실들에 나름의 순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드론=>생활, 드론=>공기=>유체역학=>기계공학, 생활=>기계공학"이 순서입니다. 나름의 순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읽기만 하면 됩니다. 동시에 '논리적'이라는 느낌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 2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드론과 공기의 관계, 공기와 유체역학의 관계, 유체역학과 기계공학의 관계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드론을 공기가 포함하고, 공기를 유체역학이 포함합니다. 유체역학은 기계공학에 포함됩니다. 즉, 논리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했던 포함 관계가 합리적 연결을 시도하면서 이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논리적'인 글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문 이어쓰기'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옵니다.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을 때, 남발되는 것이 접속사입니다.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글은 일반적으로 문장이 나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열형으로 서술된 글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움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접속사의 남발입니다.

사례 3 : "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돌보미 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루소의 '에밀'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또 저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

사례 4 : "저는 구청에서 하는 돌보미 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명깊게 읽은 루소의 '에밀'은 배려와 존중을 교육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었습니다. 교육을 공부하기 위해 교육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교사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

사례 3에는 접속사가 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접속사의 역할이 글을 구성하는 요소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는 요소를 굳이 접속사를 이용해서 다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과도한 접속사의 활용이 글을 더 어색하게 만듭니다. 접속사로 인하여 글의 읽음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사례 4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 요소를 넣으면서 접속사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접속사 부분이 해소되면서, 글의 읽음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나열형이었던 서술도 논리적인 흐름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소재로 선택된 사실들이 합리적으로 연결될 때, 글의 논리적인 느낌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 느낌이 드는 만큼 글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논리적 글쓰기가 자연스러운 글쓰기인 것입니다. '단문 이어쓰기'를 통해 글은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5. 자기소개서 쓰기 4강 <질문에 상응하는 응답>

질문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질문과 상응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은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 독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도 상응한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명료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상응되지 않을 때, '동문서답'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중학교 시절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를 쓰는 방법을 알았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

사례 1의 경우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입니다. 1번이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이루어진 노력과 경험입니다. 그러나 사례1은 중학교 시절의 것을 얘기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구사항 내지 지시사항 위반입니다.

사례 2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를 쓰는 방법을 알았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

1번이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입니다. 사례2는 사례1을 고등학교 시절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어공부를 했다'라는 사실과 '시를 쓰는 방법'을 알았다는 사실이 학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항이 요구한 것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입니다.

'노력'은 그 학업을 할 때 학생 자신이 투여한 고유의 동기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경험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획득한 고유의 산출물입니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산출물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학습경험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 3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유명한 시 100편을 암기한 후에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

사례 3에는 '유명한 시 100편을 암기한 후에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연습을 했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암기', '손글씨'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추가됨에 따라 '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고유의 '경험'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어 공부'로부터 '시'로 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어'가 갑자기 '시'로 바뀐 느낌입니다. 비약하는 기분입니다. 논리적 연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4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마치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시 100편을 암기한 후에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

사례4는 "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마치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장의 추가로 '국어'와 '시' 사이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라는 문장은 생뚱맞은 느낌입니다.

사례 5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마치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시 100편을 암기한 후에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던 그녀에게 손글씨로 쓴 시를 선물하였다. 내 앞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눈물을 보였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

사례 5 에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던 그녀에게 손글씨로 쓴 시를 선물하였다. 내 앞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눈물을 보였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장의 추가로 '시'와 '그녀' 사이에 연결의 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과적으로 보면, '국어'가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도 아직 표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모든 문항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사례 5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사실 뿐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글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례 6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마치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시 100편을 암기한 후에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마음 속으로 사랑하던 그녀에게 손글씨로 쓴 시를 선물하였다. 내 앞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눈물을 보였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 시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어와 시에 몰입했던 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과 공명했다고 생각한다.

'배우고 느낀 점'은 학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6에는 "시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어와 시에 몰입했던 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과 공명했다고 생각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사항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요구사항도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버뜨....사례 6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 자기소개서 쓰기 5강 <질문구조를 이용한 글쓰기>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개요를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요라는 것은 일종의 글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형식은 서본결 혹은 기승전결 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은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이 쓰여야 할 내용이 많을 때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많은 내용을 담는 글이 아닙니다. 짧은 글의 집합체입니다.

자기소개서 1번이 요구하는 글자수는 1000자 입니다. 1000자를 서본결로 구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서나 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미 질문 내지 요구사항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입니다. 이미 1번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자체가 서인 동시에 기인 것입니다.

막연한 서본결 혹은 기승전결로 글을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도리어 질문사항을 구조화하여 그것에 걸맞게 글을 배치하여 쓰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질문에 대응되어 글이 쓰였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소서 1번의 질문을 구조화하여 요건으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의 것으로서
- (2)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기술
- (3) '학습경험'에 대해 기술
- (4)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

위의 번호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와 무관하게 4가지의 요건을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각 요건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세분화하면, '학업', '노력', 그리고 둘 사이의 '관련성'이 될 것입니다. '학습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경험' 그리고 둘 사이의 '관련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분화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앞선 글인 <질문에 상응하는 응답>에서 사례 6의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선 글의 사례 6 입니다.

사례 6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마치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시 100편을 암기한 후에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던 그녀에게 손글씨로 쓴 시를 선물하였다. 내 앞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눈물을 보였다. 사랑하던 그녀와 사귄 수 있었다. 시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어와 시에 몰입했던 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과 공명했다고 생각한다.

사례 6은 "마음속으로 블라블라 그녀의 마음과 공명했다고 생각한다."를 추가함으로써 사례 5에 없었던 '배우고 느낀 점'을 채운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문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소서 1번이 요구하는 글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에 '대해'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이 요구하는 글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기술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학습경험에 대해' 기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례 6의 "마음속으로 블라블라 공명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구절은 '학업활동'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즉 '대해'라는 세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글일 수는 있어도 규정을 준수한 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7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마치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시 100편을 암기한 후에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몸이 움직여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시를 공부하면서 진짜 공부를 알게 되었다.

사례 6은 '배우고 느낀 점'을 사랑이라는 소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례 7은 '배우고 느낀 점'을 공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글쓰기가 어려울 때는 질문을 구조적으로 요건화시키면 됩니다. 개별적 요건에 대응하는 소재를 찾으면 글은 쉽게 씁니다.

7. 자기소개서 쓰기 6강 <쓰기의 시작>

자소서는 글입니다. 자연스럽게 쓸수록 글은 좋아집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웬지 모르게 자소서는 부담을 줍니다. 부담 없이 써도 됴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어려움이 토로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자소서를 붙들고 앉아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찢끔찢끔 쓰면서 순식간에 시간은 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스트레스만 만땅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공부도 지장을 받습니다.

자소서 4번은 대학별로 질문의 방식이 다릅니다. 고려대의 4번은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로 한정하여 자소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국어교육과'입니다. 위의 요구사항을 재구성하면, '국어교육과를 지원한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어교육과'라는 어휘와 '지원한 동기' 사이에 연결구조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기왕이면 논리적 연결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생명에게 필수적인 물질이 물이다. 물은 생명체의 혈액과 체액을 구성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물'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도 '물'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어휘가 교집합 역할을 하면서 두 문장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물'을 반드시 교집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분'으로 바꾸어도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어교육과'라는 어휘와 '동기'라는 어휘가 어휘 그 자체로 연결되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국어교육'이라는 어휘부터 정의를 합니다. 기왕이면 그 정의가 '동기'에 연결되기 적합한 것이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국어교육을 정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면 됩니다. 이때 '국어교육'이라는 말을 한 번에 정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두개의 어휘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는 개별 어휘를 정의하여 다시 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을 '국어'와 '교육'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국어 : 국어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는 언어를 익히면서 리듬을 느꼈다. 그 리듬은 블라블라.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교육 : 교육은 타인을 가르치는 것이다. 블라블라. 나는 타인을 가르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은 가르침일 뿐 아니라 배움이다.

동기 : 나는 내가 좋아하는 리듬을 익히면서 언어에 대한 배움을 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어교육을 지원했다.

이 경우는 '국어', '교육', '나의 동기'라는 형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필

요는 없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자유입니다.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사례 2

국어 : 국어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는 언어를 익히면서 리듬을 느꼈다. 그 리듬은 블라블라.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국어교육 : 초등학생 도우미 활동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국어에서 느꼈던 리듬감을 응용했다. 블라블라..

동기 : 나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국어교육을 지원했다.

이 경우는 '국어', '국어교육', '나의 동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어'와 '국어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어'가 추상적인 반면에 '국어교육'은 구체성을 띄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국어교육'으로 가면서 점층적인 설명관계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요를 구성하는 것이나 쓰기의 시작점을 설정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질문된 언어 혹은 정의된 언어를 다시 정의하면서 글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8. 자기소개서 쓰기 7강 <현실과 꿈>

모든 전형이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시 전형은 자소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도 논술 전형은 자소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형들은 시험으로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소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소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자소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소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형에 응시할 경우라면, 자소를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종은 자소서를 필요로 합니다. 특기자 전형도 자소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자소서를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학종과 걸려있는 경우라면 학종에 지원할 것인가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귀착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형에 무게 중심을 둘지에 따라 자소서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종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전형입니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립니다. '깜깜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소서를 쓰기 위해 투입한 노력이 헛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준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입니다.

수시는 보통 정시로 갈 수 있는 라인의 위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 '예상되는 수능 성적'입니다. '예상되는 수능 성적'이기 때문에 '실제의 수능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학종의 깜깜이 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수시의 지원 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바가 교과 내신 성적입니다. 전체 입시에서 예상되는 수능 성적이 마지노선 역할을 하듯이 수시 내에서는 내신 성적이 마지노선 역할을 합니다. 내신 성적을 고려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만한 라인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시와 교과의 라인이 만들어지면 합집합의 범위에서 마음에 드는 쪽으로 마지노선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 후에 정할 바가 학종 지원여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학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존재합니다. 스카이를 정점으로 세레게티까지 펼쳐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서열은 존재합니다. 중간에 스카게티도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스카이입니다. 그러나 스카이가 원하는 모두를 받아줄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스카이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정시는 정량평가 시스템입니다. 정량화된 점수에서 앞서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선시험 후지원 시스템입니다. 후지원이기 때문에 나의 타겟이 스카이라면 스카이의 점수를 얻으면 됩니다. 현재 점수가 부족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점수를 만들면 됩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 정시입니다. 미래를 향해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시는 다릅니다. 교과 전형은 예외입니다. 교과 전형은 만들어진 정량인 내신 성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시험 후지원인 정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학종은 다릅니다. 만들어진 결과가 있지만 이것이 정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면접이 보태어지면, 이 순간 선지원 후시험으로 시스템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학종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경 때문에 갑자기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수시 납치'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입니다. '수시 납치'의 동의어는 '수능 대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대박'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능 대박'은 일종의 환타지 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의 현실에서 수능 대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래의 꿈을 얻고 싶다면 정시로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수시는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수시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종이 그러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현실'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스카이라면 스카이를 지원하면 됩니다. 내가 스카이에 적합할지의 여부는 스카이가 결정할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세렝게티에 적합하다면 '세렝게티'를 지원하면 됩니다. 역시 내가 세렝게티에 적합할지의 여부는 세렝게티가 결정할 것입니다. 합불의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넣어봐야 아는 것이 학종입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역량'이 일치할 때가 제일 좋은 순간입니다. 학종은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스카이는 '스카이 역량'을 가진 학생을 택할 것입니다. 세렝게티는 '세렝게티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현실'이 세렝게티인데 '나의 꿈'은 스카이일 때입니다.

학종 지원에 있어서 가장 인정하기 싫은 요소가 '나의 현실'과 '나의 꿈'이 충돌할 때입니다. 이미 6평이라는 현실을 겪으면서 꿈과 충돌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꿈을 지향할 것인지 현실과 타협할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꿈을 지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능 대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능대박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면, 우리는 수능대박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면을 벗었을 때의 자신의 본 모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면의 원리가 사피엔스 종의 생존을 유지시켜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맨 얼굴을 인정하려는 욕

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맨얼굴을 인정함으로써 순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추구도 사피엔스 종의 진화를 촉발시킨 힘이기도 합니다.

수시는 현실과 타협하는 시스템입니다. 교과 전형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전형이 논술입니다. 논술은 수능과 더불어 또 다른 꿈이기 때문입니다. 수시의 핵심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시의 출발이고 학종의 출발입니다. 아울러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가까운 순간의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 수시이고 학종입니다.

정시는 미래를 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월등합니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멀리 있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수시는 현실을 보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현실로 얻은 성과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시와 비교해보았더니 뜻밖에도 더 좋은 행복이 나오는 것이 수시입니다.

9. 자기소개서 쓰기 8강 <배우고 느낀 점과 주관성>

자소서 질문을 활동 부분과 '배우고 느낀 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요구 없이, 단순히 "활동을 기술"하라고 요구했다면 자소서 자체가 무의미해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활동이 학생부에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활동만 기술'하라고 한 경우에도 자소서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자소서에 학생부의 활동을 보다 세밀하게 기술함으로써 학생부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소서 질문의 핵심은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활동에 대한 세밀한 보충보다 '배우고 느낀 점'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도 학생부에 대해서는 보충적 성격을 갖습니다. 학생부에 '배우고 느낀 점'이 기술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제3자의 관찰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 고유의 '배우고 느낀 점'은 자소서 작성자가 갖는 매우 주관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실한 보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례이지만, 학생부가 퍼펙트하게 동일한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토씨도 같다고 가정합니다. 인적사항만 다르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자소서는 달라집니다. '배우고 느낀 점' 때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임의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일할 수 있는 확률은 70조분의 1입니다. 여기에 염기서열의 변이까지 고려하면 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만큼 서류평가의 변별력이 보장되는 것이며 학종의 정교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하는 활동이 다 비슷한데, 서류평가가 변별력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식의 의구심은 무지의 소치인 동시에 사피엔스 종에 대한 폄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특이성을 만들기 위해 교외 활동에 매달리는 것도 쓸데없는 노력의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성찰을 갖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은 작성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의 '배움'과 '느낌' 모두 작성자의 주관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사실로서 인식하면 배움이 되는 것이고, 이를 정서로 받아들이면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엄밀한 구분은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닙니다. 혼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은 활동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활동이 없으면, '배우고 느낀 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느낀 점'은 활동과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한국사 활동'으로부터 '한국사 활동'에 직접 연관된 '배우고 느낀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재미없는 한국사로부터 한국사에 대한 '배우고 느낀 점'을 찾으려 하다 보니 왕짜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하기 싫다."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 관념을 털어내야 '배우고 느낀 점'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배우고 느낀 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심박수의 증가를 통해 "사랑은 물질대사를 활성화"라는 사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배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소비의 증가를 통해 "사랑은 즐거운 편익증진 활동"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 배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관찰을 사랑의 언어로 드러낼 때, '표현력의 증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통찰에 대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느낀 점'과 관련하여 고정된 혹은 선입관적인 인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활동'으로부터 반드시 국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사'로부터 한국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 1 : '처용가'를 공부했다. 주술의 방법으로 노래와 춤이 활용됨을 배웠다.

사례 2 : '처용가'를 공부했다. 불륜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 신라 시대의 사람들은 집단의 종족보존에 더 큰 의미를 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3 : '처용가'를 공부했다.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전해진다. 용은 이국적 요소이다. 처용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우고 느낀 점'은 주관의 영역입니다. 어떤 틀에 반드시 맞추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 해당 작성자의 인상 내지 '이미지'가 창조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0. 자기소개서 쓰기 9강 <단계별 과정>

다음은 어떤 학생의 #자기소개서 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2년 전인 2016년 4월 25일에 포스팅되었던 게시물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보기 차원에서 올립니다.

전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포인트는 상담 및 평가 내용입니다.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1 단계

<상담>

최초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졌다. 학생 스스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였다.(대개는 부모를 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문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점이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와중에도 몇 가지 사소한 해프닝이 있었지만 생략한다. 일차로 완성된 자소서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소서를 받게 되었다.

<인상>

적극적 성격, 문제해결능력

<자소서>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 생략) 지난 3년간 연세대학교라는 훌륭한 배움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첫째, 공부를 위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중간 생략. 내용 : '공부의 왕도'(EBS) 참고. 문제풀이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 주말에 여유 시간을 배치하여 평일에 못한 것을 수행 등.) 저만의 시간관리법을 연구한 결과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른다고 말하는 것,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생략. 내용 :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친구에게 도움 요청. 부끄러웠지만, 실력 향상. 잘하는 과목을 친구에게 가르침.) 저는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블랭크)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반 친구들을 위해 주요 과목 요약본과 예상문제를 만들어 오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중간 생략. 내용 : 불만 품음. 그래도 어차피 하는 것을 잘해보자 라고 생각. 예상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됨. 친구들이 고맙다고 함. 보람을 느낌. 서로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학상장’이라는 말의 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협동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가>

긍정평가.

2번은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번과 3번의 완성본이 도착하였다. 자소서 내용을 통해서 역시 적극적 성격이 드러난다. 1번 항목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남을 도우려는 자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번에서도 이 부분이 예상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협동적 성격이 활동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다. 아울러 작문 능력과 표현 능력이 있음이 자소서 자체의 문장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번의 공부방법 관련 부분을 통해서 문제해결능력도 가지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파악되었다.

부정평가.

1번의 ‘연세대라는 훌륭한 배움의 환경’과 같은 구절은 말의 낭비인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구절은 읽는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주게 되고, 본인을 지나치게 낮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의 결여가 될 수 있다.

전체적인 서술이 사실의 나열에 맏혀져 있었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언급량이 없는 수준이었다.(대다수의 다른 자소서도 마찬가지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번 항목의 첫 번째 내용은 사실의 나열로만 이루어졌다.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 내용은 배우고 느낀 점이 한 문장(“저는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에 불과했다. 3번의 예상문제 만들기 활동도 사실의 나열이었고, 1번의 내용(서로 가르쳐주는 공부법)이 일부 반복되었다.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언급이 후단에 있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삽입된 인상이었다. 아울러 3번에서는 ‘교학상장’이라는 어휘를 통해 현학적인 모습도 나타내었다.

<전략>

학생의 특징은 적극, 협동, 문제해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글에서 드러난 부분을 정리하면 부정적 요소로서 구체성 부족, 현학성, 자존감 결여 가능성이 보였다. 긍정적인 부분은 작문 및 표현 능력 양호, 문제해결능력 강함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한 자소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추가적으로 문장을 좀 더 짧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3번과 관련하여 예상문제 만들기 이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언급을 요구하였다. 이유는 다른 활동에 대한 언급

을 통해서 학생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활동을 찾기 위함이었다.

2. 2단계

<자소서>

1번.

(전체 생략. 내용 : 교환학생 경험을 기초로 서술. 예복습 철저히 함. 좋은 성적 획득. ESL 1 등 등의 내용이 언급됨.)

2번

(전단 생략. 내용 : 영어 중점학교 진학 동기)

사교육 없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와 관련 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2학년 때 영어말하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면서(중간 생략. 내용 : 영어실력 향상.)

영어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정확한 발음과 호소력을 가지고 이를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영어가 단지 외우고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체 게임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후단 생략. 내용 : 방송경영인의 꿈. 영어를 특기로 사용하려 함. 중국 학생들과의 교류 경험)

3번.

(전체 생략. 내용 : 담임 선생님의 충고로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됨. 교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 소개. 의견 고집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 PD라는 직업에 대한 별도의 언급)

<평가>

긍정평가

앞서 지적된 바에 따라 새로운 자소서가 완성되었다. 최초 자소서에 비해 구체성이 향상되었다. 전체를 통해 영어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몰입도를 볼 수 있다. 특히, 영작 능력에 강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타인과의 어울림 능력도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2번의 영어 활동과 관련하여, 배우고 느낀 점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었다. 언어를 보는 관점이 드러났고(“영어가 단지 외우고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체게임이 더욱 마음에 와 닿”), 이를 미래의 꿈(방송경영인)과 연관을 시켰다. 두 번째 활동도 미래의 꿈과 관련을 시켜서 자신의 강점(친화력)을 표현했지만,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은 미약했다.

부정평가

아직도 전체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 1번은 교환학생 때의 경험에 기초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교환학생 체험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사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에 대한 자량이 중심이 되었다는 단점이 었보였다. 2번의 경우는 두 번째 활동이 역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없는 내용에

근거를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론을 기술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말의 낭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영어활동과 관련된 표현 중 “ 사교육 없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와 같은 구절은 구체적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의 낭비에 해당한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다. 3번도 서론 기술로 인한 말의 낭비가 구체적 활동의 표현량을 줄이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된 이유는 3번에 기술해야 할 나눔 등 활동에 대해 학생이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사용한 어휘들의 추상성 및 여러 활동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전략>

학생부 기재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1번과 2번의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서론을 기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말의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다.

3. 3단계

<상담>

전화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대면 상담을 하였다. 대면 상담에서는 구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학생의 특징을 찾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나 : 1번 문항은 네가 과거에 잘했던, 현재 잘하고 있는 영역이나 과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극복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에 들어간 너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한 과목이 무엇이니?

학생 : 상업경제요.

나 : 그 과목 좋아? 싫어?

학생 : 좋아요.

나 : 왜 좋지?

학생 : --

나 :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언어로 얘기해봐.

학생 : 잘 모르겠어요.

나 : 오케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지?

학생 : 아하~~!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어요. (실제 자소서에는 이 부분이 음악으로 표현되었다.)

나 : 힘들게 공부했던 부분을 상업경제라고만 하면 범위가 매우 넓어지거든.. 그 과목에서도 구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지.. 아울러 그 공부를 통해서 다른 과목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발휘했던 부분을 생각해야 하거든... 상업경제에서 어떤 단원이 인상에 남지. 그리고 이유는?

학생 : 환율이요. 국가 사이의 통화를 교환하는 현상인데, 통화의 가치가 서로 변하거든요..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워서 커버를 했어요.

나 : 본질적으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

학생 : 맞아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나 : 수요와 공급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 수요와 공급의 교점이 가격이거든. 어떤 과목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학생 : 수학이요. 실제로도 수학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하 생략)

생략된 내용 : 수학, 경제, 영어 등 온갖 가지 과목과 읽었던 책에 대한 개인적 단상과 토론이 있었다.)

<전략>

적극성, 능동성, 경쾌함, 밝음을 부각시킬 것을 요구했다. 과목과 과목, 활동과 활동, 과목과 활동 등 연결구조를 고려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4. 4단계

<자소서>

1번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994/1000)

환율은 제게 음악의 한 장르인 클래식과 같습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처럼 환율은 복잡한 설명과 그래프에 재미없고 따분한 분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가요 만큼 즐겨 듣는 장르가 된 클래식과 같이 환율은 제게 경제 교과서 속 가장 흥미로운 단원이 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내용 : 경제공부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환율.)

교과서를 펼쳤을 때 “교환비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언젠가 친구가 소개해준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에 등장한 등가교환의 법칙이 떠올랐고

(중간 생략. 내용 : 물가와 통화의 관계. 수요 공급 그래프의 필요성.)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경제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흥미 또한 생기게 되었고 (후단 생략. 내용 : ‘전자무역’과 환율을 연동시킬 수 있게 됨. 국제금융에 깊은 흥미)

2. 의미있는 활동 3개 이내

2학년 2학기, 진로계획을 주제로 교내 영어말하기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신문기사나 유명인사의 연설에서 모티브를 따와 원고를 작성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중간 생략. 내용 : 나만의 문장 구성.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사용.)

수도 없이 대본을 퇴고하면서 더 나은 표현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영어 작문 실력은 향상되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제 2의 언어로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호소력을 가지고 완성된 대본을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영어가 단지 외우고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체계임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진로를 위해 세워두었던 계획을 재점검하고 방송경영인이라는 꿈에 대한 저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단 생략. 내용 : 중국학생과 교류.)

<평가>

긍정평가.

대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새로운 자소서가 완성되었다. 1번과 2번이 완성된 버전이다. 1번은 점층구조(상업경제>환율>수학>미적분) 및 연관구조(상업경제=>수학=>전자무역=>국제무역) 방식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각각의 연관 속에 배치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비유(클래식과 대중가요, 강철의 연금술사)를 통해 치환적 사고가 매우 강함을 보여주었다. 2번의 영어활동 부분은 배우고 느낀 점 부분을 모아서 뒤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명료함을 드러내었다.

부정평가

그러나 2번의 두 번째 활동 부분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없는 것을 소재로 했다는 사실이 난점이었고, 역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언급이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에게 인상적인 활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극을 내용으로 하는 전체적인 시나리오와도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전략>

1번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번을 채워야 한다. 첫 번째 활동인 영어활동은 괜찮지만, 학생부에 기재된 두 번째 활동이 필요했다. 그래서 앞선 자소서의 3번에 약하게 언급되었던 PD활동을 2번의 두 번째 활동으로 배치하고 대신에 강하게 언급하기로 결정했다. 3번은 특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5. 5단계

완성본.

11. 자기소개서 쓰기 10강 <배우고 느낀 점과 발견>

자소서에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의 근거가 되는 활동은 "배우고 느낀 점"을 뒷받침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므로 활동과 "배우고 느낀 점"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배우고 느낀 점"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학생부에 객관적으로 기재된 기술로부터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배우고 느낀 점"은 객관적 기재만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작성자의 주관적 인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에서 '배우다'라는 단어와 '느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배우고 느낀 점"이 갖는 주관적 특성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할 때 정서적 언어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명회에서 연사로부터 "입학사정관이 자소서를 보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듣게 되면 더욱 정서적 언어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례 1 : 블라블라...그래서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블라블라...그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지만, 저의 도움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서적 언어에 매달리다 보면, 어휘력과 표현력의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한 줄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어 공부를 등한시한 것에 대한 회한이 오게 됩니다. 컨설턴트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보다 세밀하게 기술해야 한다.",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등의 추가적 조언을 듣게 됩니다. 큰 맘을 먹고 맡겨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맡겨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짚짚함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도 권위자의 조언이 들어갔다는 사실로 불안을 삭힐 뿐입니다.

자소서는 감상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상문이라고 할지라도 글을 구성하는 모든 언어를 정서적으로 꾸밀 수는 없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의 초점은 주관적 인식에 있습니다. 인식은 "발견"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성이 부여되면 "발견"은 객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발견"이라고 보면, 어휘와 표현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 블라블라...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블라블라...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고등학생의 언어로 설명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례 3 : 블라블라...영어 공부를 위해 문제를 풀면 시험공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서를 읽으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블라블라...이렇게 원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도 즐겁게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4 :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이유는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와 사상 속에서 알게 된 철학은 문제풀이 이상이었습니다. 블라블라...사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블라블라...수요집회에서 만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들

에게 얼마나 매몰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언어의 강박에 붙들리게 되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을 감동시켜야 한다.", "자신만의 감상이 자소서에 들어 있어야 한다." 등의 언급은 소설을 강요하는 조언입니다. 설명회를 보면 저러한 류의 조언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소서의 중심인 "배우고 느낀 점"은 나의 "발견"입니다. 나의 "발견"이기 때문에 나의 기록인 "학생부"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울림이 학생부와 자소서 사이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남의 정서가 되었을 때 조화는 깨집니다.

